

<9월 27일 주일 설교 말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자 (Raising Replacements)**

본문 말씀: 사무엘상 16장 1~13절

먼저 16장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망시켜라 라고 명하십니다. 사울은 아멜렉 백성들을 진멸시켰지만, 아멜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양과 소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과 살찐 송아지와 어린양들을 비롯해 좋은 것들은 없애지 않고 남겨 두었고, 보잘것 없고 약한 것들만 없애 버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여호와와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소” 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뒤돌아 떠나려하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아서 옷이 찢어졌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왕국을 당신에게서 이렇게 찢어 내어 당신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셨소.”

오늘 설교말씀은 사무엘상 16장 2~13절 말씀을 먼저 나눈 후 1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절 말씀에 사무엘이 떠나려고 할때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으면 사울이 저를 죽일 것입니다.”

- 사무엘이 이야기 하는것은 사울이 아직 왕이라는 것입니다.
- 사울이 아직 왕임에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선택하셨습니다.
-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일곱아들을 사무엘 앞으로 대리고 나왔는데 여호와께서 선택한 자가 없었습니다.
-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선택한 자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의 차이를 알려 주십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 사무엘이 엘리압의 겉모습과 큰키를 보고 여호와께서 기름부으실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니였습니다.
- 그럼 하나님께서 키작은 사람을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희망사항입니다.
- 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 이새의 다른 아들들은 세상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고, 다윗은 은밀한 곳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들은 사람의 눈에 들려고 노력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했습니다.
- 사울왕은 사람들로 부터 주목받고 명예를 얻게 되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볼수 없는 곳에서 다윗을 키우시고 계셨습니다.
-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을 만드는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6. 너는 기도할 때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은밀하게 계시는 네 아버지께서 네게 갚아 주실 것이다. (마태6:5~6)

- 여러분은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을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조심하는 만큼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은 역할을 대신할 후임자를 키우시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 “하나님은 그의 일꾼을 묻으시지만 당신의 일은 계속하신다.” - 찰스 웨슬리 목사
- 여러분이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세지입니다. 주인이 오기를 깨어서 기다리는 종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16장 1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매우 슬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사울을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 슬퍼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 예화) 우울증으로 힘들어했거나 힘들어하는 연예인들에 대해서 찾아보았고 리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 미국 연예인: Jim Carrey, Johnny Depp, Eminem, Chris Evans, Harrison Ford, Ann Hathaway, Angelina Jolie, Michael Phelps, Brad Pitt, Lady Gaga
  - 한국 연예인: 차인하, 구하라, 태연, 아이유, BTS 슈가
  - 이들은 세상의 부러울 것 없이 많은 것을 가졌는데 문제가 뭐였을까요?
-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지면 모든 게 해결될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사람들은 힘들어지게 됩니다.
- 사무엘은 사울과 오랫동안 함께 했고, 이스라엘에 필요했던 왕이 사울이라고 믿었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네 뿔에 기름을 채우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의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선택했다”고 하십니다.

- 사무엘은 오랫동안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만하라고 하십니다.
-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얼마동안은 슬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만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사울을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 슬퍼하겠느냐?”
-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사무엘아, 너의 마음이 아픈 것 다 안다. 사울과 오랫동안 함께 한 것도 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안다. 하지만 이제 그만 슬퍼하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슬퍼한다고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위로는 될 수 있겠지만 상황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사울을 버렸다”고 하십니다.

- 예) 원승이를 잡는 이야기
- 너무 오랫동안 슬퍼하거나 우울해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마비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방식을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주셨지만, 사울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던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 우리도 왕을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평화와 안정을 줄 왕을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삶 속에서 돈을 왕으로 모십니다. 하지만 돈은 우리에게 안정과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서의 지위, 즉 명예를 왕으로 모십니다. 하지만 세상의 명예도 우리에게 평화와 안정을 주지 못합니다. 또 우리는 배우자를 왕으로 모십니다. 하지만 배우자 또한 평화와 안정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왕으로 모십니다. 하지만 가족도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 미국의 리더들을 보면서 “도널드 트럼프는 우리에게 평화와 안정을 주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더 훌륭한 리더가 필요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 바이든이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우리에게 평화와 안정이 주어질까요?
-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에게 평화와 안정을 주지 못했어”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 **세상의 더 나은 왕을 모신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답은 천국의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데 있습니다.**
- 우리가 망가진 교육 시스템과, 세상 즐거움의 유혹, 점점 더 커지는 사회의 악 등 세상의 왕으로 인해 고통받으면서도 우리가 선한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새로운 왕을 준비하셨습니다. 모든 왕들의 자리를 차지하는 하늘나라의 왕입니다. 그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 본문에서의 다윗은 인간 세상에서의 더 나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 바로 하늘 보좌에 앉으실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어서 믿음으로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자고 있는 종들에게서는 당장 일어나 가라고 하시는 다급한 경종의 말씀입니다.